

# 현대중국어 수반의미 연동문의 상과 부정

- 'V1着V2'구조를 중심으로

양영매\*

---

◁ 목 차 ▷

---

- I. 들어가면서
  - II.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
    - 1.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 2. 순차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 3. 교차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 III.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과 부정
    - 1.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적 특징
    - 2.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부정
  - IV. 나오면서
- 

## I. 들어가면서

현대 중국어에서는 동일 주어를 가지며 두 개 이상의 동사나 동사구가 연이어 사용되어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을 연동문<sup>1)</sup>이라고 하며,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구 사이에는 다양한 의미관계가 존재한다. 沈開木(1986:19-21)에 따르면 “연동문에서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구들은 동일 주어를 가지며 중간에 연결어나 휴지가 없어야 하며 의미상 연합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시, 선후, 원인, 방식, 목적,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1) 연동문에 대한 판단과 인식은 朱德熙, 劉月華 등을 따른다. 朱德熙는 『語法答問』에서 연동문을 언급하면서 “연동식은 전·후 두 부분의 관계가 주술관계가 아니며, 술목관계, 술보관계, 수식관계 등도 아니며 기존의 어떤 한 가지 통사구조 유형에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하였다. 劉月華 등은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에서 “의미상에서 연동문의 두 개 동사구 사이에는 병렬, 주술, 동목, 동보, 부사어-동사 등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치상 또는 자연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충 등의 의미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언어현실에서는 연동문에서 선행하는 동사구가 후행하는 동사구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2)</sup>

- (1) 我正坐在沙發上看電視。  
(난 지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 (2) 他在床上蒙着頭哭。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
- (3) 她脫了鞋站着, 一句話也不說。  
(그녀는 신발을 벗은 채로 서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문(1)에서 서술어는 두 개의 동사구인 ‘坐在沙發上’와 ‘看電視’로 이루어졌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파에 앉아있다는 뜻인 ‘坐在沙發上’은 텔레비전을 볼 때 취한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坐在沙發上’은 ‘看電視’의 수반동작을 나타낸다. 예문(2)의 서술어도 두 개의 동사구 ‘蒙着頭’와 ‘哭’로 이루어졌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는 울 때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였음을 나타내므로 ‘蒙着頭’는 ‘哭’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 예문(3)의 서술어도 예문(1-2)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동사구로 이루어졌는데 ‘脫了鞋’는 신발을 벗었다는 뜻이고 ‘脫了鞋站着’는 신발을 벗은 후 그 상태로 서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脫了鞋’는 ‘站’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예문(1-3)에는 통사적으로 모두 두 개의 동사구가 연이어 출현하여 문장의 서술어로 쓰였는데, 이 두 개의 동사구 사이에는 휴지가 없으며 선행하는 동사구와 후행하는 동사구가 의미적으로 연합관계, 병렬관계, 주술관계, 동목관계, 동보관계, 수식관계 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예문(1-3)은 모두 현대중국어의 연동문에 속한다. 또한 예문(1-3)에서 V1은 모두 V2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 본고는 예문(1-3)에서와 같이 연동문에서 선행하는 동사구가 후행하는 동사구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나타낼 경우 이런 연동문을 수반의미 연동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예문은 기존 연구에서 인용한 것임을 명시한 것 외에 모두 CCL(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語料庫檢索系統(網絡版), <http://ccl.pku.edu.cn>)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문(1-3)이 비록 모두 수반의미 연동문이나, 통사상 특징을 살펴보면 선행하는 동사구의 상적 특징이 각각 다르다. 즉, 예문(1)의 선행 동사구에는 아무런 상표지도 출현하지 않았지만 예문(2)에는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했고 예문(3)에는 완료상 표지 ‘了’가 출현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예문(2)와 같이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한 연동문이 지속상 표지 ‘着’의 출현으로 인하여 수반의미를 나타내기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예문(2)와 같이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하는 수반의미 연동문을 고찰대상으로 삼고, ‘V1着V2’로 표기하기로 한다.<sup>3)</sup>

다음과 같은 예문은 ‘V1着V2’로 이루어졌더라도 연동문으로 보기 힘들다.

- (4) 我只能眼睜睜地看着她離開.  
(나는 눈을 뻔히 뜨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 (5) 孩子听着听着, 就睡着了.  
(아이는 듣다가 잠들었다.)

예문(4-5)에서 서술어는 모두 통사상 ‘V1着V2’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V1과 V2의 의미관계가 연동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문(4)의 서술어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에서 V2인 ‘她離開’는 V1인 ‘看着’의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예문(4)는 연동문으로 볼 수 없다. 예문(5)도 통사상 연동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V1과 V2가 같은 동사이므로 이는 동사의 중첩형식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문(5)의 경우도 연동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예문(4-5)와 같은 경우 본고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설령 ‘V1着V2’구조로 이루어진 연동문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V1을 V2의 수반동작으로 보기는 힘들다. 예문을 보자.

- (6) 不, 您留着自己用吧, 我走了.  
(아니에요, 남겨두었다가 당신이 사용하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3) 예문(1)과 같이 아무런 상표지도 출현하지 않고 ‘V1V2’형식으로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과 예문(3)과 같이 완료상 표지 ‘了’가 출현하여 ‘V1了V2’형식으로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에 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문(6)에서 'V1着V2'인 '留着自己用'은 '남겨두었다가 당신이 사용하세요'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V1인 '留'는 V2인 '自己用'의 수반동작으로 보기 힘들다. 이는 '남겨두는 것은 당신이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V2인 '自己用'은 V1인 '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6)은 비록 'V1着V2'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수반의미 연동문으로 볼 수 없다.

'V1着V2'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1着V2'에서 V1과 V2의 의미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V1着V2'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나 대부분 V1과 V2의 의미관계 및 'V1着V2'에 대한 성질 규정에 집중되어 있었다.<sup>4)</sup> 비록 최근 들어 V1과 V2에 내재된 시간순서를 고찰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연동문 전체 또는 'V1着V2' 전체에 내재된 시간순서를 고찰한 연구로, 수반의미 연동문에 내재된 시간순서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수반의미'를 범주로 연동문을 연구한 논문은 관찰되지 않았고,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 측면에서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예문(1-3)에서도 보았듯이 연동문은 두 개 이상의 동사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동문에서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구 뒤에는 모두 상적 표지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언어현실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도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V1着V2'의 상적 특징과 'V1着V2'의 부정 부사의 분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V1着V2'에서의 상과 부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대부분 학자들은 'V1着V2'를 연동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丁聲樹(1961), 趙元任(1979), 呂叔湘(1980), 李臨定(1981), 朱德熙(1982), 高更聲(1990), 宋玉柱(1991), 方梅(2000), 張伯江(2000), 洪森(2002), 李晟宇(2001), 彭育波(2004), 高增霞(2007)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 'V1着V2'는 연동문이 아니라 수식구조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鄒韶華(1996), 李向農·張軍(2001), 戴耀晶(2001), 袁梅(2002) 등이 대표적이다.

## II.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

王維維(2009:5)는 “수반은 여러 개 동작이 공시적 평면에서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데, 동작과 동작사이에는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였다. 본고가 현대중국어 연동문을 대상으로, 王維維의 ‘수반’에 대한 정의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현대중국어 연동문의 현실에 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 연동문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sup>5)</sup>을 고려하여 ‘수반은 어떤 동작이 다른 한 동작을 수반하여 발생하거나 어떤 상태가 어떤 동작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수반’이란 한 주어의 어떤 동작이나 상태 또는 동작 후의 결과가 다른 한 동작과 공시적 평면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sup>6)</sup> 이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1着V2'에서 V1과 V2의 내재된 시간순서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있다. 그 중 李向農·張軍(2001)은 연동문 'V着V'구조의 의미관계를 연구하면서 V1과 V2의 발생 시간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V1着V2'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바로 V1과 V2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발생한 경우, V1이 V2의 상태, 방식, 수단인 경우, 공부정 형식인 경우 및 V2가 V1의 목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V1과 V2에 내재된 시간순서에 대한 분류와 V1과 V2의 의미관계에 대한 분류가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분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반면, 조은경(2014)은

5) 위 예문 중 출현동사만 보더라도 ‘蒙着頭, 脫’ 등 동작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坐, 躺’ 등 자세 동사는 상태를 나타낸다.

6) 李鐵根(1998)은 ‘小女孩盯着我看半天。(여자애는 나를 뚫어져라 한나절이나 쳐다보았다.)는 완전한 同時를 나타내지만, 趙夢桃唱着《南泥灣》進了宿舍。(자오명타오는 《난니완》을 부르면서 숙소로 들어섰다.)와 같은 경우 현실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동작과 숙소로 들어오는 동작이 완전한 동시에 이루지기 힘들고, 또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먼저인지 아니면 숙소로 들어서는 동작이 먼저인지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이는 전자는 공시적 평면에서 발생한 동작이지만, 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시적 평면에서 발생한 동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되는 ‘공시적 평면’은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와 같이 현실의 어느 한 시간대에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동작일 경우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본고의 ‘공시적 평면’은 광의적인 정의를 취한다.

V1과 V2에 내재된 시간순서를 기준으로, 'V1着V2'을 동시성, 순차성, 교차성, 선택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본고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삼고, '수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 1.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현대중국어에는 연동문 'V1着V2'에서 V1과 V2가 동시에 발생하며 V1이 V2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我剛才出去他就嚷着進來。  
(내가 방금 전에 나가자마자 그 사람이 고함을 치며 들어왔다.)
- (8) 如果運氣好, 碰上了阿眉, 我們就坐着聊個夠。  
(만일 운이 좋아서 아메이를 만난다면 우리는 앉아서 실컷 수다를 떨 거야.)

예문(7)은 '고함을 치면서 들어왔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는 V2인 '進來'라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V1인 '嚷'이라는 동작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수반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고함치는 동작과 들어오는 동작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V1과 V2의 내부 시간구조는 동시 발생을 나타낸다. 예문(8)은 '앉아서 수다 떨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은 '聊'라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坐'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도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또한, 시간 축에서 보면 V1인 '坐'와 V2인 '聊'는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V1과 V2의 내부 시간구조는 동시 발생을 나타낸다. 즉, 예문(7-8)은 모두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이며 그 내부 시간구조를 살펴보면 모두 V1과 V2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예문(7)의 V1은 동작 동사 '嚷'으로 이루어졌고, 예문(8)의 V1은 자세 동사 '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7)에서 V1과 V2는 '동작-동작'을 나타내고 예문(8)은 '상태-동작'을 나타낸다.

예문(8)처럼 V1이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정태적인 자세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sup>7)</sup>

- (9) 馬威慌着跑出來, 還沒說話, 那個巡警向他一點頭。  
 (마웨이는 당황해하면서 뛰쳐나왔다. 아직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순경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 (10) 他粗着嗓子衝着孩子嚷了一句: “喂, 孩子們, 你們還在等甚麼呀? 還不快走!”  
 (그는 거친 목소리로 아이들을 향해 한마디 소리 질렀다. ‘저기, 애들아, 너희들 아직 뭘 더 기다리는 거야? 빨리 가지 않고!’)

예문(9)에서는 선행절의 서술어부분이 ‘당황하다’는 뜻의 ‘慌着’와 ‘뛰쳐나오다’는 뜻의 ‘跑出來’로 이루어졌는데, 당황해하면서 뛰쳐나온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慌着’는 동작 ‘跑出來’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문장은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V2인 ‘跑出來’라는 동작이 이루어질 때 V1인 ‘慌着’라는 상태이었으므로 이 두 동작은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예문(10)은 거친 목소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뜻이므로 목소리를 거칠게 하는 행위 ‘粗着嗓子’가 아이들을 향해 한마디 소리를 지르는 동작 ‘衝着孩子嚷了一句’를 수반하여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 평면에서 이 두 동작을 관찰하면 두 동작이 공시적 평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문장의 V1과 V2의 내부 시간구조는 동시 발생에 속한다.

예문(9-10)을 예문(7-8)과 비교해보면 예문(7-8)의 V1은 동사로 이루어진 반면, 예문(9-10)의 V1는 동태성을 가진 형용사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네 문장 모두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에 속하지만, V1과 V2의 관계를 보면 예문(7)만 ‘동작-동작’을 나타내고, 나머지 세 문장은 ‘상태-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부 시간구조상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서 V1의 성질에 따라 V1과 V2는 ‘상태-동작’, ‘동작-동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 예문들은 양영매(2016)에서 인용했다. 기타 ‘A着VP’에 대한 논의는 양영매(2015)와 양영매(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순차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연동문 'V1着V2'에서 V1과 V2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며 동시에 V1의 동작 후 상태나 결과가 V2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衆所周知, 酒混着喝, 便成了雞尾酒, 不同的混法會品出不同的滋味。  
(주지하다시피, 술을 섞어서 마시게 되면 각테일이 된다. 섞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맛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문(11)에서 연동문 '酒混着喝'는 술을 섞어서 마신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의미적으로 V1인 '混着'는 V2인 '喝'의 방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두 동사를 시간 평면에서 관찰하면 V1인 '混着'가 먼저 발생하고 그 결과 상태에서 V2인 '喝'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 평면에서 이 두 동작을 관찰하면 V1과 V2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동작들이다. 또한, 술을 마실 때는 술이 이미 섞여 있는 상태이므로 V1인 '混着'는 V2인 '喝'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예문은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12) 鵝很委屈地叫了幾聲, 扭着頭走了。  
(거위는 매우 억울하다는 듯이 몇 마디 울더니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다.)

예문(12)에서 연동문 '扭着頭走了'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다'는 V1인 '扭着頭'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V2인 '走了'가 발생하여 시간상에서 두 동작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다는 뜻으로 이 점은 예문(11)과 같다. 예문(12)는 표면상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가버릴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개를 돌리다'는 정말로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서 그 상태로 가버린다는 뜻이므로 V2인 '走了'가 발생할 때 V1인 '扭着頭' 이후의 결과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장은 몸을 먼저 돌리고 그다음 그 상태로 가버린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은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이며 동시에 V1과 V2의 내부 시간구조는 순차 발생을 나타낸다.



예문(11-12)를 통해, 순차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를 시간 평면에서 관찰하면 V1이 먼저 발생하고 V2가 발생하여 순차적 발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V1이 발생한 후 그 결과 상태가 유지된 채로 V2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문(11-12)는 수반의미를 나타낸다.

### 3. 교차 발생을 나타내는 'V1着V2'

현대중국어에서 연동문 'V1着V2'의 V1과 V2가 교차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광의적인 시간평면에서 V1이 V2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在這吃吧, 咱們吃着談。  
(여기서 먹읍시다. 우리 먹으면서 얘기해요.)
- (14) 他哈哈地笑着說。  
(그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예문(13)의 연동문 '吃着談'과 예문(14)의 연동문 '哈哈地笑着說'을 큰 범주의 시간평면에서 관찰하면 예문(13)의 V1 '吃'은 V2인 '談'의 방식을 나타내므로, 담화할 때 먹는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반의미를 나타낸다. 예문(14)에서 V1인 '哈哈地笑'은 V2인 '說'의 수반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두 동작의 발생시간을 따져보면 예문(13)의 먹는 동작과 말하는 동작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 두 동작이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먹다가 말하고, 말하다가 먹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예문(13)은 교차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 속한다. 예문(14)의 V1과 V2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큰 소리로 웃는 동작과 말하는 동작은 생물학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동작들이다. 따라서 예문(14)의 두 동작도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간평면에서 보면 웃는 동작과 말하는 동작은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예문도 수반의미 연동문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연동문 'V1着V2'에서 V1과 V2가 시간평면에서 동시 발생, 순차 발생, 교차 발생을 나타내는 경우 수반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과 부정

李鐵根(1998)은 연동문에서의 동태조사의 단독 사용 현상과 연용 현상을 연구했고, 彭育波(2004)는 학위논문에서 'V1着V2'구조와 중국어의態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V1着V2'구조에서 동태조사 '了', '着', '過'가 모두 출현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먼저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적 특징을 고찰한 다음, 부정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적 특징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동문이 두 개 이상의 동사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동문에서 연이어 사용되는 동사구 뒤에는 모두 상적 표지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 'V1着V2'의 경우 V1은 이미 지속상 표지 '着'가 있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V2의 상적 특징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문을 보자.

- (15) 她打開門, 抱着門扇看着我。  
(그녀는 문을 열고는 문짝을 껴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 (16) 母親小心翼翼地端着茶杯走了過來。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걸어 오셨다.)
- (17) 他帶着孩子去過北京。<sup>8)</sup>  
(그는 아이를 데리고 베이징에 간 적이 있다.)

위 예문들은 모두 지속상 표지 '着'와 결합한 V1이 V2의 수반상태나 수반동작을

8) 李鐵根(1998)에서 인용함.

나타내므로 모두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하나, 이 예문들의 V2의 상적 표현은 다르다. 먼저 예문(15)은 문짜를 껴안은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이 문장을 시간평면에서 관찰하면 V1 '抱'와 V2 '看'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예문은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이다. 이 문장에서 V2 뒤에는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하여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16)은 찻잔을 든 채로 걸어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도 수반의미 연동문이다. 여기에서 V2 뒤에는 완료상 표지 '了'가 출현하여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간평면에서 V1과 V2를 관찰하면 V1인 '端着茶杯'가 먼저 발생하고, 그 결과 상태를 유지한 채로 V2인 '走了過來'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두 동작은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예문은 순차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이다.

예문(17)은 아이를 데리고 그 상태에서 베이징에 갔던 적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帶着孩子'는 '去過北京'의 수반상태를 나타낸다. 이 예문에서는 V2 뒤에 경험상 표지 '過'가 출현하여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평면에서 이 두 동작을 관찰하면 V1인 '帶着孩子'가 먼저 발생하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去過北京'에 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도 순차 발생을 나타내는 수반의미 연동문이다.

이와 같이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서 V1은 지속상 표지 '着'와 결합해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지만, V2 뒤에는 완료상 표지 '了'가 출현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해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며, 경험상 표지 '過'가 출현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V2 뒤에 상표지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 他在床上蒙着頭哭。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

예문(2)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V1인 '蒙着頭'는 V2인 '哭'의 수반동작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도 수반의미 연동문에 속한다. 그러나 이 문장의 V2 뒤에는 어떤 상표지도 출현하지 않았

다.

위의 예문을 통해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서 V2는 상적으로 '了', '着', '過'를 수반할 수 있고 각각 전체 문장의 완료상, 지속상, 경험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V2 뒤에 어떤 상표지도 출현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지속상으로 해석되지만 맥락에 따라 완료상, 경험상도 나타낼 수 있다.

## 2.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부정<sup>9)</sup>

두 개의 동사구가 연용된 수반의미 연동문을 부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연동문이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부사의 위치는 두 개일 수 있다. 먼저 흔히 볼 수 있는 부정부사가 V2 앞에 출현하는 연동문을 보자.

(18) 他有點兒小毛病你會揪着沒放?

(그에게 작은 결점이 좀 있는데 당신이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19) 馮翁哪里知道彩禮都準備好了, 只是馮生瞞着不說。

(평노인은 예물을 이미 다 준비해놓았지만 단지 평성이 속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위 두 예문은 모두 'V1着V2'형식의 수반의미 연동문이고 부정부사가 V2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예문에서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는 V2는 표면상 부정부사의 부정 대상인 듯하나, 사실은 부정부사와 결합해 선행하는 V1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예문(18)은 결점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여기에서 V2인 '沒放'은 V1인 '揪着'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예문(19)도 마찬가지로 V2인 '不說'은 V1인 '瞞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속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두 예문의 차이점이라면 예문(18)에는 부정부사 '沒'가 출현했고, 예문(19)에는 부정부사 '不'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본고는 예문

9) 연동문의 부정에 관한 논의는 매우 드문데 劉永華(2006)와 潘泰(2008)가 대표적이다. 劉永華(2006)는 연동문에서 부정부사가 출현할 경우 두 개의 동사구 중에서 어느 것을 부정하는지를 고찰하여 연동문에서의 부정부사의 의미지향을 고찰했다. 潘泰(2008)는 연동문에서의 부정초점에 대해 고찰했다.

(18-19)처럼 ‘부정부사+V2’가 선행하는 V1을 보충 설명하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V2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부정부사가 V2만을 부정하고 V1을 보충 설명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비교, 반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문으로 된 수반의미 연동문 ‘V1着+부정부사+V2’는 결국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서 부정부사는 V1 앞에만 위치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0) 雖然我不能再跳, 一場比賽開始時不跳着出場會覺得失落。

(비록 나는 더 이상 뛸 수는 없지만, 경기가 시작될 때 뛰지 않고 출전한다면 실의를 느낄 것이다.)

예문(20)에서 연동문 ‘跳着出場’은 뛰어서 출전한다는 뜻으로 ‘跳着’는 ‘出場’의 수반동작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은 수반의미 연동문임이 틀림없다. 현재 부정부사 ‘不’는 위치상 V1인 ‘跳着’ 앞에 출현해 ‘跳着’를 부정한다. 이 문장이 가정문이므로 부정부사 ‘不’은 그 뒤에 오는 연동문 ‘跳着出場’ 전체를 부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조금 다른 경우이다. 예문을 보도록 하자.

(21) 他今天沒有騎着自行車上班。

(그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았다.)

예문(21)에는 부정부사 ‘沒有’가 V1 앞에 출현한 관계로, 대부분은 사람들은 부정부사 ‘沒有’가 V1을 부정한다고 보아서 예문에 제시된 대로 출근은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 문장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중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 他今天沒有騎着自行車上班。

(a. 그는 오늘 자전거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b. 그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고 놀러 갔다.)

(c. 그는 오늘 자전거도 타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예문(21)을 예문(21)'의 a와 같이 부정부사 '沒有'가 V1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b와 같이 부정부사 '沒有'가 V2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c와 같이 부정부사 '沒有'가 V1과 V2 모두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일반적으로 '他今天騎着自行車沒有上班。'처럼 V2를 부정하거나, '他今天沒有騎着自行車沒有上班。'처럼 V1과 V2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문(21)처럼 부정부사가 V1의 앞에 놓인 경우 a처럼 V1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사람들이 예문(21)'의 b나 c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他今天騎着自行車沒有上班。'처럼 V2에 대한 부정이거나, '他今天沒有騎着自行車沒有上班。'처럼 V1과 V2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고는 전체 문장의 핵심 동사인 V2의 발생을 부정할 경우, 동작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V1의 수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V2를 부정한 상태에서는 비교, 강조 등 특수한 상황(b 또는 c)을 제외하고는 V2의 수반동작이나 수반상태를 묘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예문(21)을 예로 든다면 만일 예문(21)'의 b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他今天騎着自行車沒有上班。'이라고 말한다면, 만일 후속문장으로 '去玩兒了'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여 비교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비효율적인 문장이나 비문으로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출근하지 않은 상황을 신정보로 제시하면서, 출근 방법인 자전거를 탔다는 상황을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수식어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예문(21)과 같이 연동문 'V1着V2'에서 부정부사가 V1 앞에 놓일 경우 부정부사가 V1만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에 대해, 劉永華(2006)는 인접성 원리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접한 성분일수록 관련성이 가장 크므로 연동문에서 부정부사가 선행하는 V1 앞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V1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고는 수반의미 연동문에서 부정부사가 V1 앞에 출현할 경우도 같은 이유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특수 상황, 특수 맥락에서 후행하는 V2를 부정하거나 또는 V1과 V2를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V1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부정부사가 V1 앞에 놓여서 다른 성분들보다 훨씬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에서 일반적으로<sup>10)</sup> 부정부사의 출현 위치는 V1 앞이고 V1만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문(15-16)에 대한 부정을 관찰해보자.

- (15)' 她沒有抱着門扇看着我。  
(그녀는 문짝을 꺼안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 (16)' 母親沒有端着茶杯走了過來。  
(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걸어오시지 않았다.)
- (17)' 他沒有帶着孩子去過北京。  
(그는 아이를 데리고 베이징에 간 적이 없다.)

예문(15)', 예문(16)', 예문(17)' 모두 부정부사 '沒有'로 부정문을 이룬다. 우선 예문(16)'는 V2 뒤에 완료상 표지 '了'가 출현했고 예문(17)'는 V2 뒤에 경험상 표지 '過'가 출현해 모두 과거에 대한 설명이므로 부정부사 '沒有'로 부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예문(15)'의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지속상 표지 '着'는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沒'로 부정한다.<sup>11)</sup> 본고는 이는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동작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동작의 지속은 동작이 발생하여야 가능하고, 상태의 지속은 동작이 발생한 후 결과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당연히 부정부사 '沒有'로 부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예문(15)'의 경우도 비록 지속상 표지 '着'가 출현했지만, 부정부사 '沒有'로 부정문을 이룬 것이다.

10) 본고에서는 예문(20)과 같이 가정 등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의 상황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정부사 '不'를 사용하며 이런 상황은 일종의 특수 상황으로 간주해 예외로 본다.

11) 劉月華 等(2003:392,398) 참조.

#### IV. 나오면서

현대중국어에서 연동문은 동일 주어를 가지며 두 개 이상의 동사나 동사구가 연이어 사용되어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일종의 특수구문으로서, 통사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선행동사와 후행동사의 의미관계에 따라 동시 동작, 방식-동작, 동작-목적, 동작-결과, 상호 보충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연동문 중에서 통사적으로 'V1着V2' 형식을 취하고 의미적으로 수반의미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대상으로, 그 상적 특징과 부정 현상을 고찰하였다.

첫째, 동작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내부 시간구조를 고찰한 결과 시간평면에서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V1과 V2는 동시 발생, 순차 발생, 교차 발생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상적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V2 뒤에는 어떤 상표지도 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완료상 표지 '了', 지속상 표지 '着', 경험상 표지 '過'가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반의미 연동문 'V1着V2'의 부정현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 부정부사는 V1 앞에 출현하여 V1만 부정한다는 것이 고찰되었다. 그리고 상표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정부사 '沒有'를 사용해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V2 앞에 부정 부사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전체 문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선행하는 V1에 대한 보충 설명임이 확인되었다.

#### 【參考文獻】

- 김이영 《현대 한어의 연동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년.  
 리 & 톰슨(Li, Charles. N. & Thompson, Sandra. A,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역([1989]1999), 《표준중국어 문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년.  
 양영매 〈현대중국어 'A着VP'구조에 대한 통사 분석〉, 《中語中文學》 제69집, 2015년.  
 양영매 〈현대중국어 'A着VP'구조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中國言語研究》 제65집,



2016년.

- 이선웅 《한국어 연속동사 구문과 중국어 연동문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 조은경 〈현대중국어 'V1着V2'에 대한 고찰〉, 《외국학연구》 제30집, 2014년.
- 潘泰 〈連動句의否定與信息結構〉, 《吉林省教育學院學報》第24卷 第9期, 2008年.
- 丁加勇 〈V1着V2結構의語義框架〉, 《常德師範大學學報》第26卷 第2期, 2001年.
- 範穎睿 〈連動句中連動項之間存在多種語義關係的分析〉, 《內蒙古師範大學學報》第42卷 第6期, 2013年.
- 高增霞 《現代漢語連動式的語法化視角》, 中國社會科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년.
- 龔晨 〈“形容詞+動態助詞”結構初探〉,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年.
- 洪淼 《現代漢語連動結構研究》, 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年.
- 李臨定 〈連動句〉, 『語文研究』第2期, 1981年.
-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分析〉, 《中國人民大學學報》第4期, 1994年.
- 李晟宇 〈現代漢語連動句式的語義類型〉, 《語文學刊》第2期, 2001年.
- 李鐵根 〈連動式中“了、着、過”的單用和連用〉, 《漢語學習》第2期, 1998年.
- 劉麗華 〈關於連動句中連動項之間的語義關係分析〉, 《宿州教育學院學報》第11卷 第5期, 2008年.
- 劉永華 〈連動結構否定表達的語義指向考察〉, 《語言與翻譯》第1期, 2006年.
- 劉月華 等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3年.
- 陸儉明 〈“着(zhe)”字補議〉, 《中國語文》第5期, 1999年.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1982年.
- 彭育波 《“V1着V2”結構多視角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 沈立新 〈“V1着V2”結構句式“連動屬性的質疑”〉, 《楚雄師範大學學報》第19卷 第1期, 2004年.
- 王啓龍 《形容詞計量研究》,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年.
- 王維維 《現代漢語伴隨性動作表達結構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年.
- 袁梅 〈論“V1着V2”結構的性質〉, 《唐都學刊》第18卷 第3期, 2002年.
- 趙淑華 〈連動式中動態助詞“了”的位置〉, 《語言教學與研究》第1期, 1990年.
- 朱德熙 《語法問答》, 北京: 商務印書館, 1985年.

### 【Abstract】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 is a special construction that shares the same subject, comprises two or more consecutive verbs or verbal phrases and functions as the predicate of the whole sentence. It is syntactically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relations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verb: simultaneous movement, mode-movement, movement-object, movement-result, and reciprocal complemen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aspect and negation of serial verb construction with the syntactic type of 'V1着 V2' and semantically accompanying meaning. The results of study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V1着V2 on the basis of movement occurrence time have revealed that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V1着V2" has the relation of co-occurrence, sequential occurrence, and cross-occurrence. The results of studying the aspect of V1着V2 have revealed that no aspect marker follows V2 in some cases but perfective aspect marker "了," progressive "着," and experiential "過" do so in most cases. Finally, the results of studying the negation of V1着V2 have revealed that negative adverbs appear in front of V1 and negate only verb 1. It has been also found that, while negative adverbs follow V2 in some cases, they do not negate the whole sentence but complement the preceding V1.

### 【主題語】

연동문, 수반의미, V1着V2, 상, 부정  
連動句, 伴隨義, V1着V2, 時相, 否定

Serial verb construction, accompanying meaning, 'V1着V2', aspect, negation,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

